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첫 지정

‘한응성 의병장 충의비’
‘김극뉴 묘역’ 2건 지정

순창군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지정과 유지 관리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군은 순창 전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인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 위촉과 향토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는 순창군 소재 문화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으나, 기존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촉된 13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위원장에 최영록 순창군 前 문화관광과장을, 부위원장에 김두규 우석대학교 교수를 선출했으며, 2018년 순창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된 비지정문화재 8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들은 8건 중 ‘한응성 의병장 충의비’와 ‘김극뉴 묘역’ 등 2건에 대해서는 역사적·학술적 의미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 등 가치 있는 문화재로 판단하고, 순창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2건의 문화유산은 30일간의 지정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2019년 2월 중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그 외 6건에 대하여는 지정 필요성과 가치, 증빙자료 등이 다소 부족하고, 현지조사, 관계 전문가 검토 등의 보완 등 추가 절차가 필요



순창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최종 가결된 ‘한응성 의병장 충의비’.

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유보했다.

‘한응성 의병장 충의비’는 임진왜란 때 스승인 조헌 선생과 함께 충남 금산성 전투에서 순국한 한응성 의병장에 대해 1892년에 고종 임금에 의해 이조참의로 추증되면서 정려된 비석이다. 인계면 노동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창에서 보기 드문 임진왜란 관련 인물 유적이다.

‘김극뉴 묘역’은 인계면 마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명 ‘말명당(馬明堂)’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풍수지리와 문화관광자원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에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은 순창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소프라노 박소영, 뉴욕 메트 데뷔... 세계 인정 ‘밤의 여왕’

소프라노 박소영(31)이 성악가들에게 ‘꿈의 무대’로 통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메트) 오페라극장에 데뷔한다.

소속사 위클레식에 따르면 박소영은 내년 1월3일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역으로 메트 데뷔 무대에 오른다.

메트에서 아시아인 여가수가 주역으로 발탁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밤의 여왕’은 화려한 기교와 높은 고음 때문에 많은 성악가들이 탐내면서도 쉽게 맡지 못하는 캐릭터다.

박소영은 하이 F가 세 번이나 나오는 격정적인 ‘밤의 여왕 아리아’를 숙명교도 같은 곡으로 여긴다. 이 곡으로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했으며 보스턴 리릭 오페라,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오페라 콜로라도 등의 무대에 섰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박소영은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음악 석사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수료했다. 보스턴, 세인트 루이스, 글리머 글라스 등 오페라 레지던시는 물론 LA 오페라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거쳤다.

위클레식은 “주로 북아메리카 무대에서 활동해왔기에 아직 한국 관객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다”면서 “홍혜경, 조수미, 신



영옥, 캐슬린 김의 뒤를 이어 메트 무대에 오르는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소개했다.

이번 메트 오페라 ‘마술피리’는 줄리 테이머 프로덕션으로, 해리 비켓이 지휘한다. 특히 테이머는 영국 밴드 ‘비틀스’의 리메이크 곡들을 엮어낸 ‘어크로서 더 유니버스’ 감독, 뮤지컬 ‘라이온 킹’ 연출가로 유명하다. 19일 개막한 공연은 1월5일까지 다른 캐스팅으로 이어진다. /뉴시스

국내 미술시장규모 4942억 전년대비 24.7% 증가... 2008년 이후 최고

온라인경매·중저가시장 확대
업체수·종사자도 증가 추세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49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경매는 전년 대비 71.3%로 성장, 중저가 미술시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18 미술시장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국내미술시장 규모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건축물 미술작품이 전년 대비 138.9%로 크게 늘고 경매와 화랑의 작품 판매금액이 각각 16.8%, 13.4%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작품판매금액 기준으로 화랑은 상위 3개가 63.0%, 경매회사는 상위 2개사가 75.0%, 아트페어는 상위 2개가 55.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랑은 상위 3개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10.4% 상승하여, 국내 미술시장은 여전히 상위 그룹에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총 거래 작품 수는 3만5678점으로 2016년(3만3348점)보다 증가했고, 평균 작품가는 1385만 원으로 감소 추세로 집계됐다. 평균 작품가는 전년 대비 16.5% 증가했지만, 2010년 대비 20.6% 감소해 중저가 미술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온라인 경매의 약진이 기여했다. 평균 작품가가 300만 원인 온라인 경매의 작품판매 규모는 4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3%로 크게 성장했다.

미술시장에 종사하는 업체 수는 748개, 종사자 수는 438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8.4%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화랑과 경매, 아트페어, 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전시시장 조사도 이루어졌다. 2017년 전시시장은 화랑, 경매, 아트

페어, 미술관에서 총 7790회 열렸고, 참여 작가는 총 5만4530명, 관람객은 총 2040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시 분야에서 서면계약을 진행하는 비율은 화랑이 66.9%, 미술관이 67.2%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시장 집중도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 처음 실시됐다. 이번에는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55개)과 경매회사(14개), 아트페어(49개), 미술관(230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순창군립도서관이 ‘2018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우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문 정신 고양과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

순창군립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우수상 수상

순창군립도서관이 ‘2018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서 우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순창군립도서관은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시상식에서 우수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시상금과 함께 인증 현판을 받았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전국 공공도서관, 문화원 등 지역의 문화시설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과 및 사회과학 등 통섭형 주제

순창군립도서관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진행했으며, 특히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진행한 인문학 입문 강좌를 바탕으로 인문학의 본질에 다가서는 심화과정을 담았다.

군립도서관 관계자는 “그간 군립도서관은 군민들이 일상 속의 인문학 강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인문정신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